

건강 칼럼

봄의 불청객 A형 간염, 특별 주의 요망!

A형 간염이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본부 전수감시감염병 통계정보에 의하면, 지난 3월, 전년도 대비 발생 건수가 1.6배 증가하였다.

A형 간염은 공중보건위생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되나, 최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20~30대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A형 간염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A형 간염 환자의 발생 양상은 경제활동은 많이 하는 20~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50대 이후에는 환자 발생이 많지 않다.'

▲A형 간염이란?

A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대증요법에 의해 회복되지만, 집단발병이 가능하고 드물게 간성흔수 등을 동반한 급성 간부전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A형 간염은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 중 하나인 A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AV)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6살 이하의 소아는 70%가 무증상으로 감기



최영득

간염 전북지부 건강증진의원장

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식욕감퇴, 구역, 구토, 전신 쇠약, 고열, 복통, 설사 등 대부분 증상을 보이며 70%에서 황달 등 간 기능 이상을 보이게 된다.

고령 환자에서는 비교적 사망률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인간이 유일한 숙주로 분변-경구 경로로 대부분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며,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통한 간접 전파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에서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의 변화

A형 간염의 국내 발생 양상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의료계의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는 10대가 되면 약

90%에서 자연 감염에 의해 항체가 생성되었으나 1989년 10대의 항체 양성률은 약 65%로 감소하고 20대가 되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를 대부분 획득하였다.

이처럼 소아와 청소년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이 현격히 낮아진 것은 사회경제적 발달 및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파가 줄어들면서 자연면역 획득이 감소한 데에서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2015년부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12~23개월의 모든 소아가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었으며, 성인 예방접종 시 항체검사 시행 후 항체가 없을 시 예방접종을 권고하던 연령 기준을 30세에서 40세로 상향하는 등 연령별 항체 보유율에 따

라 국가정책을 개정시키고 있다.

▲A형 간염의 예방법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위생관리이다.

기관 및 단체는 예방접종, 상하수도 정비, 식수원 오염방지, 식품 및 식품 취급자 위생관리 등 공중 보건위생 향상에 힘써야 하며, 개인은 손 씻기, 음식 가열조리(1분간 85 C 이상), 오염된 물(약수물, 지하수 등) 주의 등 위생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일반적인 불활성화 백신은 항체 생성률이 낮아 여러 번 접종해야 하지만, A형 간염 백신은 같은 불활성화 백신임에도 1회 접종으로 95% 항체가 생성률을 보이며, 생성률을 100%까지 높이기 위해 6개월 간격 2회 접종을 권장한다.

현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할과 관리 지침에 의하면 12~23개월 모든 소아,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및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남성 동성애자, 불법 약물 남용자, 만성간 질환자 등이 접종 대상이며, 직업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실험실 종사자, 의료인, 군인, 요식업 종사자 등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설

서울 부산의 발목 잡기 가만둘 일 아니다

서울과 부산의 전북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결코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낙후를 벗어나 보려고 전북도는 도민들과 함께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몸부림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가보다. 사사건건 발전시도를 방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성원을 해도 시원치 않은 관에 해를 넘겨서도 음해를 하고 있으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아마도 저들은 이번에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속으로 계소금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들은 정부가 서울 부산과 함께 전북을 세번째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밝혔을 때부터 즉각 제3의 금융중심지로 키워면 전북이 낙후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터인데도 저들은 초장부터 판지를 걸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과욕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이 말을 금융중심지로서의 성격이 다른데도 저들은 생각을 급하지 않고 있다.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 의지를 강고하게 다져야겠다. 전북을 해치는 발안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바라는 군산시민의 염원과 관련된 찬물을 끼얹는 발안이 나오고 있는데 심히 염려스럽다.

그에 박수라도 치듯 충청도와 전남에서도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 의지에 대해 압박을 가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타면제 대상이 됐어도 실제 예산이 집행 될 때까지 경쟁과 난관이 예상되는 것이다.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밀어부쳐야 한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역 발전은 백년하청이다. 전북도는 발전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전북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시나브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발전 과정이 미미하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들은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 그 같은 불균형은 시정해 마땅하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쳐져 있는 까닭은 분명하다. 타 지역의 유해성 발안들에 휘둘리고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전주 특례시 지정 요구는 균형 발전의 이정표

전주시는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겠다. 지금 전주의 특례시 지정 요구의 목소리가 꾸준히 일고 있는데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특례시라도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같은 요구는 전혀 억지가 아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국가 불균형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기도에는 우후죽순처럼 많은 특례시가 생기는데 반하여 전북 지역은 더욱 낙후로 곤두박질할 게 뻔하다.

그래서 도지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또다시 생각난다. 도지사는 저번에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국가의 발전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을 축으로 발전시켜 왔다면 이제는 동서를 축으로 해야 한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한국은 분단 이후 서울을 중심에 두고 수십년 동안 경기도와 충청남도과 경상남북도 지역을 열두에 둔 판도를 그려왔다.

그래서 호남과 강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거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여기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전

주시민의 특례시 지정 요구는 마땅하고도 당연하다. 60만 시민의 힘을 결집해 특례시 지정의 목표를 관철해야 한다. 광역시도 없고 특례시도 없다면 그것은 결코 균형 발전이 아니다.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면서 후대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도 예외가 아니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 요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 특례시 지정 요구는 충북의 청주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께 연대해서 당위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

본보가 사실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는 바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선에는 자존심도 필요하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인구 수가 형편 없던 수도권의 작은 도시들이 이제는 전주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수원이 그렇고, 고양이 그렇고, 용인이 그렇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100만을 턱걸이 하고 있는 성남과 부천도 가만히 있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성과 남양주와 안산도 기회를 엿볼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의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 요구를 현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독자제언

여성 악성범죄 탄력순찰 신청하여 예방하자

최근 여성에 대한 카메라 이용범죄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집안을 무단침입해 속옷 절도하는 등 여성 악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룸에서 홀로 사는 여성들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속옷 등을 세탁한 뒤 집안에서 건조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피해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탄력순찰'을 도입하여 기존에 경찰중심 순찰방식과 달리 주민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고 있다. 불안정소를 느끼면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탄력순찰' 외에도 주기적으로 원룸 밀집지역 '방범진단'을 실시해 방범

사실이 없는 원룸에는 방범시설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여성 입주자들이 원룸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원룸운영자들은 1.건물 외벽 가스배관 매립 2. 건물 입구 발도의 출입문, 조명등 설치 3. 방범장 설치 4. 현관 출입문 도어락 설치 5. CCTV설치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위 조건을 갖춘 원룸은 방범진단에 우수한 점수를 받아 타 원룸보다 그 안정성을 검증받아 여성들의 원룸 선택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은 입주 후에 방범시설이 부족하다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빈틈없는 방범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과 주민 모두가 범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원룸 밀집 지역에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이동민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포르투갈서 관광버스 추락, 십여 명 사망



17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마데이라섬 키니수에서 관광버스가 추락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대응하고 있다. 사고 버스에 독일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십여 명이 숨지고 십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독자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